

전남도 공모사업 전문성 없고 졸속 대응

해수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재도전 탈락, 경남 고성에 내줘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일정 연기에 동부권 통합청사 잡음도

전남도가 정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에 또 실패했다.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공모절차를 진행하다가 대상지 발표를 보류해왔고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동부권 통합청사 공모 사업은 한때 후보지 공모에 나섰던 자치단체들이 유치 신청조차 거부할 정도로 부작용을 초래했다. 전남도가 공모사업 지원팀까지 갖추고도 의욕만 앞서 공모사업 준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재도전에 탈락=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경남 고성군을 선정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 및 배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 부지에는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의 경우 수온·수질·사료 공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양식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첨단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양식 기술을 검증할 대규모 시설이 전무한 만큼 정부 주도로 스마트 양식을 육성하겠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정부는 400억을 들여 양식장과 배후 부지를 조성하는 데 절반이 넘는 2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수산업계 안팎에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면 전남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지만 끝내 유체에 실패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첫 공모 때 신안을 후보지로 내세워 유체에 나섰다가 부산

에 밀렸고 이번 공모에서는 경남 고성에 뒤져 탈락했다. 1차 공모 때부터 도전장을 뒀던 부산·경남 고성·신안 중 신안만 유체에 실패하면서 전국 대표 수산도시라는 명성도 무색해졌다.

◇남도의병 역사공원, 졸속 공모 비판=전남도가 추진중인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사업도 공모 준비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까지 개최했음에도 뒤늦게 사업 성격과 역사공원 콘텐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며 28~29일 예정됐던 사업 대상지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역사공원에 대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 '선명하게 사업 성격을 확정한 뒤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역사공원 콘셉트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480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로 240억원에 '선명하게 사업 성격을 확정한 뒤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역사공원 콘셉트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480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로 240억원에

전남도가 의욕만 앞서 공모를 추진하면서 사업 개략조차 정립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과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업 대상지 선정 일정에 맞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결의대회와 지지선언까지 추진하며 유체에 나섰던 도내 시·군들도 허탈하게 했다.

◇분열·잡음 일으킨 동부권 통합청사 공모=전남지사 공약사업인 '동부권 통합청사' 후보지 공모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잡음을 일으켰다. 한때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특정 지역 내정설이 불거지다가 하면, 후보지 공모에 나서려던 자치단체가 유치 신청을 철회하고 추진 과정의 공정성을 비판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이 때문에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사업임을 들어 공모를 맡았던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의 치밀한 준비·검토 부족과 대응력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고, 지역민 '통합'은 커녕 '분열'만 일으키는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빛가람 페스티벌 10월 18~19일 열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가족 노래자랑·드론체험 등 화합

오는 10월 18~19일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제5회 빛가람 페스티벌이 열린다.

올해 페스티벌의 주제는 '화합, 에너지, 4차 산업혁명, 지역혁신성장'이다. 올해는 기존의 페스티벌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지역민이 함께 하는 노래자랑, 가족 견기대회, 드론체험 등 화합의 장으로 치를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 ▲플래시몹, 풍물놀이 등 식전 공연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혁신도

시 입주기업의 제품 전시회 ▲부대행사 등이다.

전시회에서는 드론, VR·AR, e-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등 분야별 전시·체험(제작), 시뮬레이션, 콘텐츠 가상 체험 등이 진행된다. 견기대회는 빛가람동 호수공원 2.4km 구간 4개소 지점에서 버스킹, 플래시몹, 전통공연, 경품 추첨 행사를 연계해 추진한다.

22개 시·군의 친환경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무인 판매를 실시하고 남은 농산물은 견기대회 경품으로 사용한다. 현장에서 추진하는 지역 친화형 상생 프로그램인 청년창업 플랫폼 '메이커 나주'도 제품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공공기관 채용 11월 9일 통합 필기시험

도시철도공사 등 86명 채용 9월 16일~20일 원서접수

광주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2019년도 하반기 직원 채용을 위한 통합필기시험을 11월9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반기 채용인원은 ▲광주시도시공사 5명 ▲광주시도시철도공사 42명 ▲광주환경공단 20명 ▲광주테크노파크 2명 ▲광주신용보증재단 7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명 ▲광주복지재단 3명 ▲광주시체육회 1명 ▲광주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명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2명 ▲광주시교통문화연구소 1명 등 11개 기관 86명이다.

원서접수는 9월16일부터 20일까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해 개별

접수하면 된다. 기관 또는 분야별 중복접수는 불가능하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기관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정 등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산하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온 시험을 올해부터 시가 주관해 동일한 날짜에 통합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11일 상반기 통합필기시험을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기관별로 진행되는 면접시험도 시가 제공하는 인력풀을 활용해 외부 면접관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국비 79억 확보

전남도가 도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와 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등에 나선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9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와 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등에 국비 79억원(총사업비 11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사업비 56억원), 함평 해보하수처리장 증설사업(15억원), 목포 남약하수

처리장 약취 방지사업(3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5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2023년까지 지하수 오염과 지반 침하 등 원인으로 부각되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보수를 위해 1415km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목포 32km, 여수 40km, 나주 8km, 보성 40km, 장흥 11km, 진도 1.6km 구간을 우선 조사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26일~30일까지 불법어업 특별 단속

전남도가 여름철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 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 어구 사용, 어민 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해상 불법 채묘시설과 득량만 무허가 통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남지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5년 397건, 2016년 399건, 2017년 326건, 2018년 305건으로 다소 줄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지도·홍보·지도도를 하고, 적발 시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라켓으로 최류탄 되돌려 보내는 홍콩 시위대 24일 홍콩 카오롱 지역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자가 경찰이 쏜 최류탄을 테니스 라켓을 이용해 경찰 쪽으로 다시 보내고 있다. 이날 홍콩에서는 시위가 또다시 폭력 양상을 보이며 화염병과 최류탄, 빈백건이 재등장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10여일 만에 평화 시위는 종료됐다. /연합뉴스

고흥~여수해역 울들어 첫 적조주의보 발령

전남도, 대응반 배치 총력

울들어 처음으로 고흥~여수해역에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다. 전남도는 기동대응반을 배치해 방제활동을 펼치고 어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해 관리요령을 지도하는 등 양식 수산물 피해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를 기해 여수 화정면 제도, 자봉 해역에서 유해성 적조밀도가 늘어 국립수산물학원에서 고흥 봉래면 염포에서 여수 남면 안도 동쪽 중단에 이르는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 예찰 결과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m당 20~500개체가 분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조주의보 발령 기준은 코클로디니움 100개체/ml 이상이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적조예비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방제선단을 구성해 수산피해가 우려되는 가두리 양식장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정화선 4척을 배치했다. 23일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즉시 양식장 인근에 적조구제 효과 입증된 머드스톤 1t, 분말황토 2t, 총 3t을 살포해 조동방제에 나섰다.

또 기동대응반을 배치하고, 방제활동을 지원하면서, 어업인 등 3958명에게 적조 발생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했다. 여수 화정면 해역의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에게는 산소공급기 등 방제장비 1984대를 일제히 가동하도록 하고, 먹이 급여량을 조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박관식 대표 부동산 大 세미나!

불안한 부동산시장 광주·전라도지역 아파트, 부동산 시장 大 전망!

소액으로 월세받는 황금노른자위를 찾아라!
아파트, 상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토지보상금 "25조" + 정부24조원 예비타당성 면제
3기 신도시의 발표이후 아파트 부동산 大 전망!
국가에서 개발하는 신개발지를 찾아라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OBS TV "행복한부동산 연구소" 출연중!!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55분 방송 출연중)

하면 토지가 답이

PT-123456

인도다익=66L

10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6~207호(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미륵역)하차 5번출구 직진 200m(3분소요))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특별 무료상당 진행

▶ YouTube "한국토지개발원"을 검색해서 "구독" 해주세요

▶ "한국토지개발원"을 검색해서 친구추가를 해주세요.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63) 283-3369 / 010-3039-4174

www.한국토지개발원.com